장애인 자립 정신 고취 · 자아실현 '희망의 터전'

김밥김 · 도시락김 주로 생산 · 47개국 수출
해미금김 · 부안오디자반 · 생파래김 등 다양한 제품 판매
근로자 인권위 · 노사위 운영 등 권익 보호로 산업평화 모범 보여

이름마저 싱그러운 '바다의 향기'가 부안지역 장애인들의 희망으로 우뚝 섰다.

'바다의 향기(원장 : 조상완)'라는 이름으로 부안 사회복지시설지구에 둥지를 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근로장애인들이 내일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바다의 향기'는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착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전북 최초로 근로장애인 30명이 함께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갖춘 부안군은 지난 2011년 부안군장애인작업장으로 바다의 향기를 개관, 37명의 장애인과 6명의 고령자, 4명의 일반경력직, 10명의 종사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바다의 향기'는 부안지역 삼해상사(주)와 OEM 계약을 맺어 가공 식품을 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삼해상사(주)는 전국 최초로 조미김을 개발, 정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 인증도 받은 국내 김 수출 1위의 중견기업으로 부안군 줄포면에 공장을 가동, 세계 각국으로 다양한 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바다의 향기'에서는 삼해상사(주)에서 판매하는 김밥김과 도시락김 등을 주로 생산, 장애인들과 함께 생산한 제품들은 47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삼해상사(주)에서 정년을 앞두고 퇴사한 베테랑 기술자와 장애인들이 뜻을 합쳐 출발한 '바다의 향기'는 2011년 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한 신규특별지원사업에 선정돼 자체브랜드로 '해미금김(海味金김)'을 출시 자립의 발판을 다졌다.

바다 향기 넘실대는 토종 브랜드 '해미금김'은 국내산 원초와 국산 참기름, 천일염으로 깔끔한 고소한 맛을 내 인기상품으로 떠올랐다.

또한 '바다의 향기'는 지난 2014년 HACCP 인증까지 획득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SK 자회사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의 지원을 받아 부안지역 특산물 오디를 김자반에 접목한 '부안오디자반'을 출시해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다.

부안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제품 다각화에 주력한 '바다의향기'는 현재 프리미엄 선물세트 A(생돌김 1톳, 조미재래전장 5봉, 조미돌김전장 5봉, 부안오디자반 2봉), 프리미엄 선물세트 B(생파래김 1톳, 조미재래전장 5봉, 조미돌김전장 5봉), 해미금김 선물세트 1호(식탁김 48봉), 해미금김 선물세트 2호(식탁김 24봉), 해미금김 선물세트 5호(조미재래전장 10봉 또는 조미재래전장 5봉, 조미돌김전장 5봉 혼합), 부안오디자반 세트(부안오디자반 8봉), 도시락김, 생돌김, 생재래김, 생파래김 등을 판매하고 있다.

'바다의 향기'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은 성공적 시장 개척과 더불어 무엇보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집중,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전이 사업을 펼치며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역량을 떨쳤다.

이를 통해 '바다의 향기'는 2014년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도내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받아 사례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또, 올 3월에도 조상완 원장이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장애인들이 똘똘 뭉쳐 시장 개척에 주력한 '바다의 향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극심한 경기 불황에도 설립 첫해 2011년 매출액 3억원으로 출발한 '바다의 향기'는 2012년 7억원, 2013년 9억원, 2014년 10억원, 지난해는 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기 불황을 뛰어넘는 시장 개척으로 이뤄진 수익은 대부분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쓰고 있다.

'바다의 향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는 극히 드물게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보장한다.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이 원칙은 철칙으로 지켜왔다. 어려운 살림에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급여를 밀려본 적이 없다는 것도 자랑거리다.

사회복지공모사업을 통해 설비 보강에도 주력해 부안군청, 전북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복나래SK,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엠대우,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롯데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바다의 향기'에 지원한 기금도 16억에 달한다. 지원비는 아낌없이 현장 설비 투자와 운영지원, 복리후생지원 등에 쓰여졌다.

또한 '바다의 향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 인권위원회와 노사위원회를 운영, 지난해 전북도로부터 산업평화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돼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안전교육을 진행, 산재 예방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조상완 원장은"부안의 청정 바다에서 건져낸 맛 좋은 김을 만드는 '바다의 향기' 근로자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다"며"경기 불황에도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신념으로 장애인 근로자들과 의기투합, 시장 개척 성공의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으로 튼튼한 내실을 갖춘 '바다의 향기' 최고 자랑은 장애인 근로자들이다"며"장애의 굴레와 많은 어려움에도 직장에서 자아를 찾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성공적 내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재기자